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노동부,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운영실태 점검

- 노동부는 최근 퇴직연금사업자(금융기관)간의 불공정·과당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불건전 가입권유, 리베이트 제공 등을 중심으로 퇴직연금 도입사업장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 - 퇴직연금은 '05.12월 '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' 시행에 따라 기존의 퇴직일시금을 사외적립·운용하여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로 도입되었으며, '09.9월 현재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약 9조1천억원에 달하고 있음.
 - 운영실태 파악은 최근 퇴직보험 적립금의 퇴직연금 전환 시점이 임박해지면서 퇴직연금시장에서의 퇴직연금사업자(금융기관)간 불공정·과당경쟁 양상이 심화되는 추세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.
 - 중소기업의 경우, 기존 대출의 연장이나 신규 대출을 요청 시 이를 조건으로 퇴직연금 도입 및 사업자 선정을 권유하는 불건전 가입을 권유하고 있음.
 - 퇴직급여 적립금 규모가 큰 대규모 사업장이나 공공기관에서는 높은 수익률의 원리금보장상품을 제시하거나 콘도 회원권 등의 부가서비스 제공과 같은 리베이트 경쟁이 심화됨.
 - 노동부는 그간의 행정지도 공문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시장에서의 불공정·과당경쟁이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임에 따라 퇴직연금을 단순 금융상품으로만 인식하는 실태를 제도 초기에 전담조사관(42개 지방노동관서)을 통해 조기 차단할 방침임.
 -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재원이라는 성격에 맞도록 퇴직급여재원의 운용과 장기적인 제도 발전을 위해 퇴직연금 전문서비스 역량*을 강화한 사업자간의 경쟁을 유도할 예정임.
 - 또한,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건전 가입권유, 과도한 수익률 제시 및 적정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실태, 구체적 사례 등 운영실태 점검하여 이를 법령개정 등에 반영할 계획임.
- * 개별사업장 특성에 맞는 제도 설계, 장기분산 투자원칙에 입각한 금융상품 개발 및 라인업, 효율적 자산운용 서비스, 가입자 교육 및 퇴직연금 기록관리 등

(퇴직연금시장 불공정과당경쟁에 적극 대응, 노동부 임금복지과, 11/10)